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1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스님	불교신문사
2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선불교의 뿌리	김성철	오타쿠
3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출판사	8	딱돌 해설서	중암선해	금빛소리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스님	정토	9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법화경	손종호	운주사	10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자식을만드는지식

책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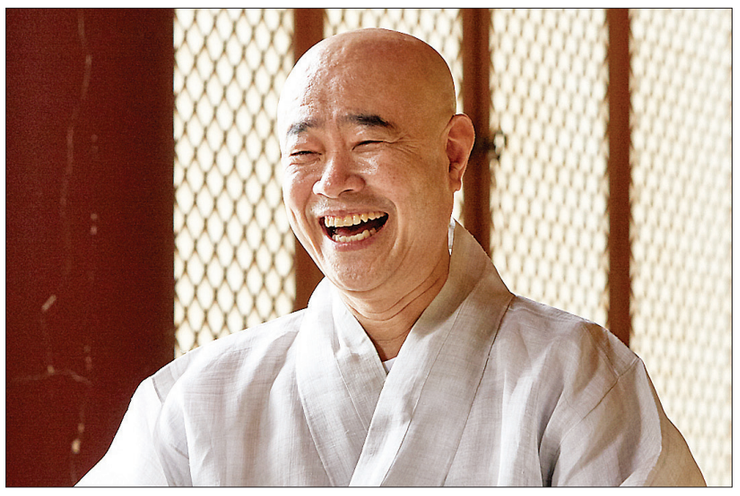
“번뇌, 끊어야 할 게 아니고 관찰할 대상”



월호 스님의 유마경 강설

월호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8천원



〈유마경〉, 대표적인 대승경전이자 불이(不二) 사상의 정수 담겨져
유마거사가 불제자들에게 법 전하는 이야기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아바타 번뇌로써 관찰하는 게 진정한 번뇌를 대하는 방식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인 월호 스님과의 인연은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직항로가 없던 시절, 본지가 기획한 중국 선종 본찰인 소림사 순례에 스님이 동참하면서 부터다. 당시 쌍계사 국사암 주지던 월호 스님〈오른쪽 사진〉은 동국대서 묵조선과 간화선으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공자 답게 선의 원류를 체험하기 위해 걸망 하나 지고서 진지하게 답사에 임했다. 그로부터 20여년 동안 월호 스님은 경전 강설을 비롯해 간화선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치열한 노력으로 월호 스님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학승이 됐다. 일명 불벤져스중 한명이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강백(講伯)인 월호 스님이 유마경 강설을 이번에 출간해 화제다.

대표적 대승 경전이자 불이(不二) 사상의 정수가 담겨 〈유마경〉은 많은 불자들이 탐독하는 경전중 하나다.

이번 〈월호 스님의 유마경 강설〉은 특히, “요즈음이야말로 ‘중생이 아프므로 나도 아프다’ 는 유마 거사의 말이 실감나는 시기입니다. 인류 대다수가 코로나19서 벗어나야 비로소 나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유마경〉의 지혜를 잘 전해서 모든 생명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라는 월호 스님의 말 만큼이나 코로나19 시대에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승반야부 계통에 속하는 〈유마경〉은 재가거사인 유마힐을 주인공으로 한 경전이다. 경전 중에서 재가자를 주인공으로 한 경전은 〈유마경〉과 승만 부인을 주인공으로 한 〈승만경〉뿐이다. 그래서 이 두 경전은 불교 역사서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진다. 〈유마경〉에서는 방편으로 병을 앓는 유마 거사가 부처님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이 책은 총 14장의 경전을 ‘제1막 암라팔리 동산과 유마방’ ‘제2막 유마의 텅빈 방’ ‘제3막 다시 암라팔리 동산’ 등 3개의 막으로 정리했다.

제1막에서는 제1장 중생계가 보살의 불국토이다(一. 佛國品), 제2장 유마거사가 짐짓 병을 보이다(二. 方便品), 제3장 유마의 가르침을 받은 십대제자(三. 弟子品), 제4장 유마의 가르침을 받은 네 보살(四. 菩薩品) 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어 제2막에서는 제1장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가다(五. 文殊師利問疾品), 제2장 사리불의 의문과 대가섭의 찬탄(六. 不思議品), 제3장 문수와 유마, 사리불과 천녀의 대화(七. 觀衆生品), 제4장 보현일체색신보살의 질문과 유마의 게송 답변(八. 佛道品), 제5장 유마가 불이법문을 묻고 33보살이 답하다(九. 入不二法門品), 제6장 아바타 보살의 출현과 유마의 대중공양(十. 香積佛品), 제3막에서는 제1장 아난의 질문과 세존의 답변(十一. 菩薩行品), 제2장 여래를 바르게 관찰하라(十二. 見阿閦佛品), 제3장 제석천의 서원과 법공양의 의미(十三. 法供養品), 제4장은 미륵보살에게 법을 부촉하시다(十四. 囑累品) 등의 법문이 전개된다.

〈유마경〉에 대해 월호 스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유마경〉은 삼세제불(三世諸佛)의 최상의 깨달음을 설한 것이며, 붓다의 깨달음도 이로부터 생긴다고 일컬어진다. 〈유마경〉은 예로부터 ‘소(小)화엄’ 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설한 경전인 〈화엄경〉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심오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화엄경〉을 농축시켜 엑기스로 만든 게 바로 〈유마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불(行佛)의 실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한 월호 스님은 ‘〈유마경〉의 진면목’ 에 대해서도 말했다. “〈유마경〉은 부처님도 물론 중간중간 설했지만 유마가 설한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말하자면 세존께서는 연출하셨고, 〈유마경〉의 주연은 유마 장자와 문수보살, 사리불 등입니다. 유마 장자는 행불의 경지를 설해주고, 문수보살은 대승보살의 경지를 설해주고, 사리불은 성문과 연각의 입장을 대변해주지요. 사리불은 색즉시공을 설하고, 문수보살은 공즉시색을 설하며, 유마 장자는 색즉시색을 설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다 표현돼 있지요. 우리가 이걸 대조해가면서 명료히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마경〉의 장점이죠. 보통 초기 경전은 성문의 입장인 ‘제법무아 색즉시공’ 의 입장을 주로 설하고, 대승경전은 보살의 입장인 ‘공즉시색’ 의 입장을 주로 설하는데, 〈유마경〉은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 ‘색즉시색’ 의 입장, 즉 붓다의 안목을 설해주고 있습니다.”

월호 스님은 〈유마경〉 공부를 통해 “우리 모두 ‘아바타’ 임을 깨쳐 자신의 애착은 쉬되, 남에게는 따뜻한 애정을 머금고 살아갈 것”도 당부했다.

“〈유마경〉에서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 고 말합니다. 번뇌는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번뇌가 실체 없음을 관찰하며 관찰자 입장에 서는 것이 열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찰자는 항상하고, 즐겁고, 불성인 ‘내’ 가 있고, 청정하기(常樂我淨) 때문입니다. ‘나의 번뇌’ 는 ‘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 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죠. 몸은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몸과 마음 어디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 가 있겠습니까?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일 뿐! 우리 모두 아바타임을 깨쳐 자신의 애착은 쉬되, 남에게는 따뜻한 애정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면 관찰과 보시 복덕이 필수입니다. 이를 전하는 것이 바로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법을 설한다’ 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저자인 월호 스님이 〈유마경〉을 처음 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80년도이다. 당시 동해안 경비사령부 최전방 철책선, 비무장지대서 근무한 스님은 경계근무 위주로 하다 보니 시간이 남아서 어머니께 볼만한 책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다. 그때 속가 모친이 보내준 책이 바로 〈유마경〉이다. 그 후로 스님은 몇 번 읽어 본 적은 있지만 깊은 뜻은 잘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원문과 기존 번역본들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살펴보니 ‘교재를 만들기 위해 번역했지만 진짜 공부가 된 것은 바로 나로구나. 아는 만큼 전하다 보니, 전할수록 알게 되는구나’ 를 실감했다.

월호 스님은 불교공부를 하게 된 동기도 밝혔다. “학창시절 한겨울에 북한산에 간 적이 있어요. 정상에 올라갔는데 춥고 배고파서 일행들과 뭐 해 먹으려고 버너에 코펠 올려놓고 물을 끓였죠.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서 텐트 치고 그 안에서 물을 끓였는데, 그걸 잘못 건드려서 펄펄 끓는 물이 제 발등에 고스란히 쏟아졌어요. 발등이 폭삭 익어버려서 얼른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겨울이니까 맨발로 내려올 수가 없었죠. 경사진 돌길을 신발 끈 헐겁게 매고, 일행 중 한 사람이 부축해줘서 쩔뚝거리면서 내려오는데 화상 입은 부위에 신발이 쓸리니까 한 발 한 발 걷는 게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죠. 그때 문득 ‘발등만 데어도 이렇게 고로운데 이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한 육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 어린 애가, 고등학교 때쯤인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제 발등의 고통이 없어졌어요. 마취제나 진통제를 맞은 것처럼 전혀 고통이 안 느껴졌어요. 거기서부터는 뛰다시피 해서 산을 내려왔죠”라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땐 그냥 신기하다 여기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불교를 공부하면서 생각해보니 바로 이거였어요. 이 몸은 아바타요, 붓다의 몸은 법신이다.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겠지만 법신은 불생불멸이다. 그러므로 모든 병 또한 아바타의 병으로 관찰하면서 자기의 병으로 남의 병을 가엾이 여겨야 한다. 이러한 법을 설하는 것이 진정한 자애다. 그러므로 방편 없는 지혜는 속박이요, 방편 있는 지혜가 해탈이다. 지혜 없는 방편은 속박이요, 지혜 있는 방편이 해탈이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월호 스님은 강조한다.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체 번뇌가 여래의 씨앗이기 때문이죠. 일체의 마군과 외도들이 나의 시자이며, 뭇 마군들은 생사를 즐기고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며 외도들은 모든 견해를 즐기고 보살은 견해에 있어서 동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을 핍박하는 이는 불가사의 해탈보살입니다. 여러분이 보살도를 닦기로 마음먹었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대보살님께서 나를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저놈만 세상서 없어지면 내가 사는 게 편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 보살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일체의 마구니와 외도들이 다 나의 친척이고 시자라는 게 바로 붓다의 안목입니다. 또한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를 어찌 얻을 수 있으냐고 합니다. 최고의 진주를 캐내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배를 캐야죠? 그러니까 ‘번뇌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번뇌 막지 말고 가는 번뇌 잡지 말라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됩니다. 번뇌는 끊어야 할 게 아니고 관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바타의 번뇌로써 관찰을 하는 게 진정한 번뇌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저자 월호 스님은?

동국대서 묵조선과 간화선을 전공해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리산 쌍계사 고산 큰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봉암사 · 동화사 · 해인사 · 쌍계사 등 제방선원서 참선 정진했다. 동국대 겸임교수 ·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행불선원 선원장으로, 불교방송 BBS-TV ‘월호 스님의 행불아카데미’ 를 인기리에 진행중이다. 저서로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등 다수가 있다.

밝은사람들 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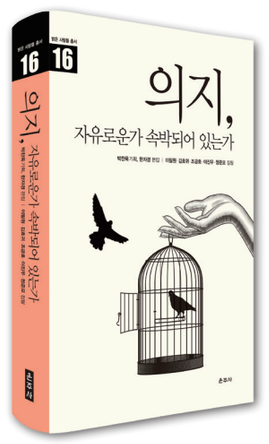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삶의 원동력이자 몸이나 말의 구체적 행위를 결정하는 ‘의지’에 대하여, 불교와 서양철학, 그리고 현대의 심리학과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그 본질, 작동 방식 등을 성찰하였다.

이필원 김호귀 조긍호 이진우 정준모 집필
신국판양장/432쪽/24,000원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동영상 시청 안내 ★
- 21년 12월 하순 유튜브에서 책 제목으로 검색하면 집필진의 주제발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밝은사람들 총서 다른 주제발표들도 업로드 작업 중입니다. “밝은사람들연구소”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유튜브 업로드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면 업로드 된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동영상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